

2022년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4회차 결과 보고

일 시	2022년 8월 26일(금) 13:30 ~ 17:00
장 소	금산군 조팝꽃피는마을(충남 금산군 제원면 길곡길 8)
참석자	총 59명(좌장 1, 발표자 2, 지정토론자 3, 광역센터 5, 그 외 참석자 48명)
주 제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을 점검하다.”

□ 주요 일정

구분	내 용
1부	발표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을 점검하다.” •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농촌협약의 개선과제 • 중간지원조직의 행정정보조사업 지원방안 : 천안시 기초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2부	쟁점토론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한단계 도약 방향” • 마을사업 관련 마을 리더, 행정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쟁점 토론 진행

□ 주요 내용(자세한 사항은 자료집 참고)

○ 발표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 정석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 유형과 주요 내용 및 지속적인 추진방안
 - (예비단계)현장포럼: 현장포럼의 성과는 주민 스스로 계획을 짜고 참여함으로써 농촌다움 보존, 공동체성 회복, 마을발전 방향제시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 컨설팅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많음.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크다고 봄.
 - (1단계)희망마을 선행사업: 선행사업의 경우 대상지의 감소, 예산 축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시군에서 마을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부분이 미비할 시 연계될 사업들도 근거를 잃을 수 있음.
 - (2·3단계)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중앙과의 차별성의 경우 마을 및 시군의 사업 추진의지를 강조하며 유희시설의 리모델링 중심 진행을 당부함. 도 입장에서는 이미 시군 이양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시군 및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사업임.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정책 융복합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업의 개선방향 검토
 - (예비단계)현장포럼: 농번기 정형화된 포럼의 과제 개선을 위한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1단계)희망마을 선행사업: 사업비 관련 시군 자율성 부여, 컨설팅비 목적(역량 강화 중심)에 맞게 활용
 - (2·3단계)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단계 축소 및 예비 계획서 내용 간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수렴 필요, 10억 사업의 사무장 활동비 지급 논의 필요

○ 발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농촌협약의 개선과제”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공모사업 선정 자체보다 현장의 실질적 작동에 초점
-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업비 집행과 프로그램 사업이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미 정책적 관심은 약해지고 있으며 농촌협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형국임.
-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협약의 실질적인 마중물 사업으로써 읍면 단위 ‘사람과 조직’의 집중적인 육성 등을 통해 농촌협약을 대비해야함.
- 충남형 방식 도입 및 사업지침 보완, 강화 필요
- 광역 단위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마을가꾸기팀 및 중간지원조직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업무 조정을 해야 함. 광역 계획지원단의 확대 개편도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방향에 대한 워크숍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지속적인 토론과 합의, 재점검 등을 위한 심화워크숍 강화가 필요함.
- 충남 광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행착오 축소
- 각종 정보의 충분한 공유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마을 사업과 읍면 단위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협약 등이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함.
- 또한 대화마당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광역에서는 좀 더 정책 토론 및 쟁점 토론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

○ 발표 “중간지원조직의 행정정보조사사업 지원방안 : 천안시 기초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주덕 센터장(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마을만들기사업(시군 역량강화) 참여자 평가
- 2017~2018년도 주민주도 공모사업을 진행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국책 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에 사용되는 기법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사업에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 분석 결과 시군 역량강화 사업 가치는 651,083,550원으로 2018년 소요 예산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 행정정보조사사업 지원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 역량단계별 행정지원사업과 소액공모사업 확대 요구: (방안)시 자체 예산 증액 및 사업물량 확대 지원, 타 부서 연계사업 발굴, 타 기관 관련 사업 발굴 및 연계 지원, 마을공동체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한 소액사업 지원
- 역량단계별 행정지원사업을 타기관이 아닌 센터와 진행 요구: (방안)현장포럼, 선행사업 등과 같은 S/W 컨설팅 수행을 위해 센터 상근자 인력 증원 및 운영비 증액, 센터 상근자 및 활동가의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연계
- 인근 마을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도움 요청: (방안)복수

의 행정리, 면 단위로 확대 지원, 동아리까지 확장 지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컨설팅 모임 조직, 마을활동가 발굴 육성, 주민자치회 현장 활동가 배치

-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안)마을자치 기반정비 외 마을 수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설계 운영, 사업지침 단순화 및 신청서 수준 조정, 행정서류 간소화, 현장활동가 확대 육성(법인 위탁수수료를 활용)

○ 쟁점토론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 한단계 도약 방향”

- 좌장: 염창선 이사장((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별 개선 방안과 연계 방안은 무엇인가?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의 경우 충남도 마을가꾸기팀에 있는 사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마을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행정의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포함하여 생각해야함. 다른 부처의 사업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 그리고 현재는 기계적으로 역량단계를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 매년 사업 목록집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업 목록집을 통해 정보의 제공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부서 간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이창신 센터장(홍성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선행사업의 경우 3천만 원을 쪼개서 사용하는 방안이 마을 입장에서는 좋지만 행정 처리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금 형식으로 센터에서 운영한다면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지방이양 이후 도에서 진행하는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을 농촌협약처럼 최소 소액사업 지정을 통해 진행한다면 유인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됨.

■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의 주체별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초초고령화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산 등을 진행할 수 없는 마을이 늘어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 사업 방식을 통한 지원이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가까이에 작은 컨설팅 회사나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 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마을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을 밖, 마을 가까이에 있는 작은 조직의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은 이러한 조직의 육성 이라고 할 수 있고, 농촌협약은 조직이 발달되어 있을 때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

■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 지속성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무엇인가?

• 오민환 팀장(아산시 농정과 농촌협약팀)

- 아산시의 경우 전문 업무 추진을 위해 센터와의 업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됨. 아산시는 현재 사업 계획과 진행, 현장 방문 등 모든 업무를 공유하고 있음.

• **김봉균 팀장(김해시 농촌활성화센터)**

- 김해시의 경우 행정의 조직개편으로 팀이 분리되면서 기존 업무가 2개 팀으로 나누어짐. 센터 입장에서는 기존 업무와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게 됨. 행정의 조직개편 시 정확한 성과 지표 또는 정보 공유 등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른 시각에서 보는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은?

• **김봉균 팀장(김해시 농촌활성화센터)**

- 충남은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음. 김해시의 경우 충남의 마을만들기 프로세스 모델과 역량단계별 모델 등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있음.
- 충남의 역량단계별 추진 모델은 사업 완료 이후의 단계를 제시할 수 있음. 김해시의 경우 마을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 김해시는 충남의 마을사업 길라잡이 사업 목록집을 벤치마킹하여 제작하고 있지만 공개가 어려운 상황임. 그 이유는 사업 목록집을 공개했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임.
- 충남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개선되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음.

□ **향후 일정**

○ 제5회 대화마당: 10.28.(금) 13시 30분, 부여군

- 주제: “마을독본의 미래를 논하다.”

□ **진행 사진**



대화마당 전체 참가자

정석호 센터장 발표 모습

구자인 소장 발표 모습



주덕 센터장 발표 모습

염창선 이사장 토론 모습

쟁점 토론 모습